

# 선진화 및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에 역점

##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위해 통합적 접근 통한 조화 모색해야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 팀장 이윤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은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민이 의료를 쉽게 접근하도록 가장 빠르게 개선한 국가이다. 그 주요 요인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인구 비중을 확대<sup>1)</sup> 한 것이고, 전체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매우 증가한 덕분이다<sup>2)</sup>. 또한,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중 역시 매우 낮아진 덕분이다<sup>3)</sup>. 다른 발전 이유는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건강지표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 7.1%이다<sup>4)</sup>. 하지만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0년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서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로 30년간 14.8세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영아사망율 등은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2006)가 OECD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기대여명, 유아사망률, 각종 암 유병률 등 건강수준과 암·심근경색 사망률 등 진료성과 관련 30개 지표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24개 OECD 국가 중 건강수준 3위, 성과 5위로 종합 5위를 차지할 만큼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성취에는 경제 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동안 가꿔 온 우리의 의료서비스산업이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표 1.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변화

구분	1980년	1987년	1989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10년
계	65.9세	69.9세	71.0세	71.4세	73.5세	76.0세	80.7세
남자	61.8세	65.8세	66.8세	67.3세	69.6세	72.3세	77.2세
여자	70.0세	74.0세	75.0세	75.5세	77.4세	79.6세	84.1세

※ 주요국 평균수명(2010년) : 미국 78.7세, 호주 81.8세, 프랑스 81.3세, 독일 80.5세, OECD 평균 79.8세  
(출처 : OECD Health Data 2012)

### 과거와 다른 상황에 직면한 의료서비스산업 환경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수요가 증가하

- 1) 건강보험 적용 인구 비중은 1977년 320만명(8.8%) 1989년 3,992만명(90.4%) 2000년 4,590만명(96.7%) 2011년 4,930만명(96.8%)으로 증가하고 있다.
- 2) 전체 요양기관은 1980년 13,316개소에서 2011년 82,948개소로 6.2배증가하였고, 의원급 요양기관은 1980년 10,952개소에서 2011년 46,363개소로 4.2배증가, 병원급 요양기관은 1980년 341개소에서 2011년 2,921개소로 8.6배 증가하였다.
- 3)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은 1977년 87.2%, 1980년 74.0%, 2010년 32.1%로 낮아지고 있다.
- 4)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이며 주요선진국의 60% 수준이다. 미국은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11.6%, 독일 11.6%이다.





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인류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BT·IT·NT가 융합되어 바이오칩, 바이오인포메틱스(bio-informatics), 줄기세포 연구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체 연구 등의 획기적 발전에 따른 맞춤형의료(personalized medicine), 예측의료(predicted medicine)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이러한 기술과 결합하여 치료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료 패러다임으로 변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격변하는 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외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WTO DDA, FTA 등 세계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기술, 정보, 자금력 등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세계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지역적 경쟁에서 세계적 경쟁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은 미래형 고도성장 산업이 되고 있다. 세계 BT산업 시장규모는 910억불(2005년)에서 3,090억불(2015년)로 연평균 13%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의료기기·식품 등 바이오보건의료산업은 BT산업의 80%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기술 우위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BIO R&D, 의료 R&D 강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전체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중심이며, 고부가가치 창출과 첨단 의료기술(emerging technology)의 산실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증차대할 뿐만 아니라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지니는 산업이기도 하다.

###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성과

지난 1년 동안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은 환경 변화 및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먼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최근 동향 및 이슈를 분석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시성(Timeliness)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성장률 예측,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동향 예측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아젠다를 발굴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을 개발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한 연구중심병원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비 회계관리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의료기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조사, 투입자원 추정, 경제성분석 등 정형화되고 검증된 방법론에 의거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시설 건립, 시설 운영,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진료, 조직인력, 건축, 운영, 재무, 정보화, 장비계획 등)을 수립, 공공병원, 대학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또는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진단, 조직진단, 시설진단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바, 중소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주관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입분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소병원에 맞는

정책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u-Health의 종합적·체계적 기반 뿐 아니라 글로벌 u-Health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환자 유치와 글로벌 u-Health의 동반성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투입된 자원의 적정화와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 측면의 현황 파악과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의료자원 공급 및 배치 적정화 관련 정책대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표2.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성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의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동향 및 이슈</li> <li>• 국내 의료서비스산업 동향 분석</li> <li>•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 개발</li> <li>• 연구중심병원의 연구비 회계관리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수립</li> <li>•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선 및 통합분석시스템 구축</li> <li>• 치료재료 가격결정방식 개선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사업 타당성 조사</li> <li>• 의료기관 경영진단 등 컨설팅</li> <li>• 중소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주관기관</li> <li>• u-Health의 종합적·체계적 시스템 구축</li> <li>• 의료자원 적정화 방안 추진</li> </ul>

### 의료서비스산업 주요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은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주요 5대 이슈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방안, 국민들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료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새로운 기술인 BT와 IT 융합 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방안, 녹색경영을 통한 병원경영 효율화 방안이다.

#### ·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이 중요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은 2011년 말 현재 11% 수준이다. 2026년경 고령화 비율은 20%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2). 가속화되는 고령화비율은 단순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고조되는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의료비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5.6%를 예측하고 있다. 2020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51조원으로 GDP 대비 11.1%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저(低)비용 고(高)보장' 건강보험제도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보장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증가 억제 및 '건강수명' 연장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 국민 의료 접근성 용이해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설·장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국민의료비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연평균 14.9% 성장하였다. 그 결과 2010년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급성병상수는 8.1병상으로 일본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의료자원은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질적인 내실화 및 경제적으로 접근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의료자원의 양적·질적 수준 적정화를 위한 자원 현황의 실증적 파악과 정책대안 개발이 제기되고 있다.

#### · BT와 IT 융합 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시장 개척 필요

최근 의료시장은 바이오인포매틱스,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등 BT와 IT 융합 기술 개발로 예방의



학분야 및 맞춤형 치료 기술 발달과 치료영역 확대되고 있다. 유헬스케어 시장이 5년 전인 2007년에는 태동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1년에는 3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12% 증가 예상되고 있다. IT기술과의 융합으로 의료기술 향상과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

자연주의에 대한 회귀가치관 증가와 질병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변화가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형성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자연주의에 대한 회귀가치관의 증가로 질병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공공의료정책과 융합하여 보완대체요법 이용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서양의료와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이 결합하여 환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통합의료’가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만성질환·난치성 질환 치료 분야에 "통합의학"이 중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보고에 의하면 2011년 미국 내에서 보완통합의학에 투자된 비용이 약 30조원에 달하며 해마다 15~20% 정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경 고령화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통합의학이 향후 보건의료산업계에서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녹색경영을 통한 병원경영 효율화

‘친환경병원을 구현하려는 녹색경영(Green Business)이 병원경영효율화와 서비스마케팅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등 일부국가는 이미 친환경병원 인증 기준<sup>5)</sup>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병원을 추구하고 녹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병원경영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가령, 친환경병원으로 리노베이션과 병원의 그린빌딩화로 에너지사용을 감소하고, 병원용품의 친환경제품 사용 및 재활용·재사용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병원들이 친환경 의료기관인 “Eco 병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녹색경영에 동참하고 Eco 서비스를 新의료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킬수 있는 System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맺는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비용·효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 수준을 확보하면서 산업적 역량을 최대한 결집·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선진국의 동향에 대응하여 선진국의 첨단의료기술 독점이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에 대처해야 한다. 의료의 특수성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정책은 상당한 이념적 갈등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의료의 질과 서비스 수준, 환자 안전의 확보 및 국민 건강의 증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정의와 시장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은 모두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이다. 대립이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조화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5) 미국 USGBC(U. S. Green Building Council)의 LEED-HC, 영국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의 BREEAM, 호주 GBCA(Green Building Council of Australia)의 GreenStar-HC 등